

PRESENTATION MASTER. THE PROFESSIONAL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전철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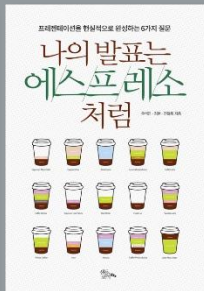
십삼 년 차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전철웅 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 졸업.

삼성전자,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외교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氣** 살리기 연중 캠페인 4탄

“스티브 잡스가 PT의 귀재가 된 것은 ‘여유’와 ‘확신’ 갖췄기 때문”

‘PT 전문가 만들기’ 강의 현황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의 귀재가 된 것은 ‘여유력’과 ‘본질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전철웅 단장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열린 시티신문의 연중 캠페인 4탄 ‘직장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만들기’ 강의를 통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조건 2가지를 밝혔다. 바로 자신감을 뜻하는 ‘여유력’과 ‘프레젠테이션을 존재하게 만든 제품이나 아이템’을 의미하는 ‘본질력’이다.

우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여유력’을 갖춰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강조했다.

전단장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여유가 있다. 그 집에 초대된 손님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는 수많은 경험과 연습이 뒷받침 된다”면서 “애플의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여행연습을 수없이 하는 잡스의 모습을 통해 잘 표현이 된다”고 밝혔다.

‘PT 마스터’ 전철웅 단장
이틀간 본지 독자 200명 초청
‘PT 성공조건 2가지’ 주제강연

대다수 참가자들
“기본 다시 깨달아” 호평

이어 이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본질’ 즉 제품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표현되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스킴이 아닌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의 강연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본질’ 즉 애플 제품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잡스는 제품의 전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품 로고 디자인 선택까지 직접 관여했다. 제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전단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비법은 없다. 미안하지만, 오늘 강의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는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는 없다.”

일순간 강의장은 술렁였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배우고자 강의장을 찾은 참가자들을 향해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으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어 전단장은 “그러나 비법은 없지만 정도(正道)는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도움이 안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현재가 아닌 미래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던 참가들은 고객을 끄덕이며 공감했다. 연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의 경험상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강의” “스킬 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더욱 가까워진 느낌” 등의 호평이 쏟아졌다.

이소진 기자 rayoun@citydaily.co.kr



사진=김치윤 기자 cyk78@

통로까지 짝 매운 독자들

“다음 강의 꼭 해달라” 요청

‘직장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만들기’ 이벤트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물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장이 꽉 찼을 만큼 많은 인원이 몰렸던 것.

지난 17~18일 이틀간 신촌의 CNNtheBIZ에서 진행된 강의에는 100명이 정원의 강당에 120~13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통로 쪽 계단에까지 자리를 잡고 2시간여 강의를 모두 열정적으로 경청했다.

늦게 도착한 한 참가자는 자리가 없어서 잠시 당황하다가 “서서라도 듣겠다”며 강당 한쪽에 자리잡았다. 서 있는 자리조차 못찾은 참가자는 아쉬움에 발걸음을 돌리면서 “다음에 꼭 이 강의 프로그램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린 18일 저녁 행사에도 본지 우려와 달리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직장인들의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참가자 강의평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 새삼 깨닫게 됐다. 여유와 본질이라는 PT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인상적이었다. (광고대행·30·여)

‘프레젠테이션의 비법, 방법은 없다. 오로지 연습만 있을 뿐’ ‘연습→실행→경험→여유력 생긴다’는 말끝에 동감한다. ‘본질력’이란 프레젠테이션 정의도 매우 좋았다. (경영컨설턴트·55·남)

프레젠테이션을 떠나서 앞으로 살아갈 데 있어 좋은 강의였던 것 같다. ...영화장면이랑 비교해서 설명해준 덕분에 이해가 빨랐다. (학생·24·여)

▶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소스들이 많이 좋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강의여서 실용력이 있었다. 주의집중도가 높았다.” (광고대행·25·여)

▶ “신문사 기획의도에 맞게 쉽게 잘 설명해줬다. 나중에 전철웅 단장의 책 사서 읽어보겠다.” (요리강사·44·여)

▶ “강사님의 실전 경험담을 통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비법을 듣고 싶다.” (제조업체 대표·44·남)

▶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점을 동영상과 설명으로 쉽게 깨닫게 해주었다. 2시간 강의가 짧게 느껴졌다. 다음 주제에서는 일반 프레젠테이션 스킴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광고회사 미디어플래너·45·남)

▶ “연습·실행·경험에 의한 자신감 부여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이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국제물류업·45·남)

▶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해 이해를 도우려고 하고, 자세한 방법보다는 중요한 내용만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사무직·20대·여)

▶ “짧은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기본을 알 수 있도록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 호텔예약시스템 총괄팀장·45·여)

▶ “다른 특강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줘서 유익했다.” (광고대행·29·남)

▶ “이번 강의를 통해 여유력과 본질력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 다음에는 회법에 대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화장품 회사 홍보팀·28·남)

▶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좋았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가 시리즈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수·56·남)

직장인 氣 살리기

연중 캠페인



‘PT의 신’이 보여준 생생 실전노트에 수강생들 “깨달음의 시간”

본사 주최 ‘직장인 PT 전문가 만들기’ 2차 강의 성황



‘프리젠테이션 마스터1호’ 전철용 단장
이들간 본지 독자 250명 대상으로
‘킬링 메시지: PT의 시작과 끝’ 주제강연
참가자들 “구체 사례까지 보여줘 감동”
한목소리로 극찬 쏟아내

후속강의 조만간 선보일 계획

“프레젠테이션의 기초가 뭔지를 알게 됐다”
(한현만),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김미영),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안세봄), “킬링메시지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손민구),
“막연한 프레젠테이션 기법만 기대하였는데 ‘킬
링 메시지’의 중요성과 실례까지 알게 돼 감동받
았다” (손지호),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이 아닌 생각지 못했던 참신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김진수)

호평 일색이었다. 한결 같은 칭찬 릴레이에 모
두가 만족하며 마무리 됐다.

29~30일 한국리더십센터 평생교육원에서 대
한민국 최초로 프레젠테이션(PT) 강의를 진행
한 시티신문 연중 캠페인 ‘직장인 기(氣) 살리기-
직장인 PT 전문가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끝났
다.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1호’이자 ‘신

조선유혹공작단’ 전철용(36) 단장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내용은 단순히 기
술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킬링
메시지’와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질
을 꿰뚫는 명쾌한 내용 전달로 수강생들을 사로잡
았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에 대한 깨달음
에 감동까지 느꼈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평가다.

이들간 강연에 참석한 약 250명에게 의견을 물
은 결과 거의 전원이 극찬하며 높은 점수를 줬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강의를 준비한 전 단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 단장은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지난
번 보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감안해달라고 요청했
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 놀랐다”며
“자연히 더욱 알찬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직장인의 필수 덕목으로
PT 능력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목마름도 물론이거니와, 10년 간 PT에 관
해선 국내 최고로 꼽히는 전 단장의 생생한 실전
노트가 공개되니 지대한 관심과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 단장과 본지가 펼쳐는 직장인 기(氣) 살리
기 후속 강연은 조만간 더욱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엔 참가하지 못한 독자들의 의견
을 참작해 회수를 늘리거나, 특정 계층까지 분류
하는 선별 작업을 통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
민할 예정이다. 전 단장 역시 더욱 진화된 강의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

한병규 기자 bk@/

사진-김치용 기자 cyk78@citydaily.co.kr

>>>>> 참가자 강의평

PT에서의 ‘killing mes-
sage’라는 개념을 처음 들
었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된 것 같았
습니다. PT를 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명쾌하게 소
개해서 좋았습니다.

-30대 김경민

지난 7월 진행했던 1단계,
이번 진행한 2단계에 이어
계속 PT가 무엇인지 전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기
분개념, 2차 실전 경험을 보
여준 것 감사드리고 실례를
들어 주어 고맙습니다. 현존
PT 강사 중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50대 박정수

훌륭합니다. 자주해주세
요. 다음 강의는 PT 디자
인인가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강사님과 파트너
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
니다.

-30대 양승원

생전 처음 듣는 유익한 강의
여서 좋습니다. 계속 공부해
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직 공부 관련, 인생의 잔여 시
간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오늘이 계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50대 오준영

기획에 대한 강의 잘 들었
습니다. 연속해서 제작,
발표, 진행, 연출까지 배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김림아

PT 강의 성공에 후원사들도 미소

한국리더십센터·에듀윌 등서
강연 장소·이벤트 물품 제공

‘직장인 PT 전문가 만들기’ 이벤트가 성공리에
마치자 후원사들도 미소를 지었다.

이번 이벤트에 후원사로 참여한 회사는 한국리
더십센터 평생교육원, 에스티앤컴퍼니(ST &
Company), 에듀윌, 스피커, ㈜한국인삼공
사 등으로 약 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은 이번 강연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좋은 결실을 맺자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에듀윌 광고홍보팀 이인희 과장은 “강의 시작 전
부터 많은 인원이 몰려 놀랐고, 좋은 강의가 되었
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했다.



‘영어단기학교’ 수강권
을 제공한 에스티앤컴퍼
니 측 역시 “전철용 단장이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카
피를 공개하는 등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다”고 답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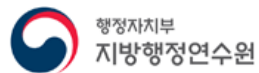
장소를 제공하고 진행
을 도운 한국리더십센터
측 이재용 팀장도 “좋은 강
연을 열게 돼 기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센터를
널리 알리게 된 기회가 됐
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강의는 지난 7월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100명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강의의 문을
매했다. 시작 10분 전 이미 자리가 꽉 들어차고, 계
속 밀려드는 인파에 좌석 30여개를 추가했음에도
서서 듣는 수강생이 나타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0일 저녁
에도 우려와 달리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인기를 실
감할 수 있었다.



강연 경력 _ 기관





강연 경력_기관





강연 경력 _ 기업





강연 경력 _ 대학





강연 경력 _ 공개





강연 후기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영진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강연 후기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강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프레젠테이션 특강



강연 후기

두 시간 동안 청중을 집중시키는 마력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 들었던 강의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충북대학교 프레젠테이션 특강